

# 글로벌 기업·사모펀드·VC까지... 'K-뷰티 M&A' 예의주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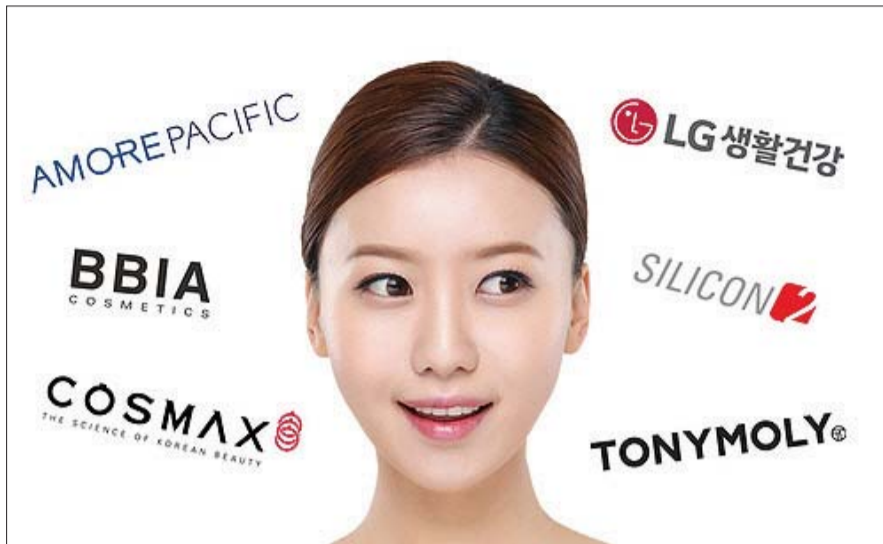
작년 화장품 수출액 102억 달러 엔코스 등 7개 뷰티사 매각 거론  
美 수입 점유율 22%로 韓 선두  
“뷰티제품 ‘감성 영역’이 중요해  
국산 인기 상당기간 지속될 것”

인수합병(M&A)시장에서 'K-뷰티' 기업들의 몸값이 뛰고 있다. 글로벌 뷰티 기업 뿐 아니라 돈 냄새를 맡은 글로벌 사모펀드 운용사(PEF)들도 K-뷰티의 성장세에 베풀며 인수전에 적극 뛰어들고 있다.

13일 뷰티와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현재 매각이 거론되고 있는 회사들은 ▲달바글로벌 ▲피코스텍 ▲아로마티카 ▲엔코스 ▲클래시스 ▲화성코스메틱 ▲지디케이화장품 등이다.

시장에서는 글로벌 뷰티 기업과 국내외 사모펀드, 벤처캐피탈(VC) 등이 M&A 시장에서 각축전을 벌여질 것으로 본다.

한만휘 MMP 이사는 “요즘 사모펀드나 VC 같은 투자 기관들 중 K-뷰티 섹



/유투이미지

터를 검토하지 않는 곳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소비재나 뷰티 섹터는 M&A 시장에서 인기 있는 분야가 아니었지만 최근에는 국내 화장품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인기를 끌면서 모두가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K-뷰티를 인수하면 남는 장사라는 인식이 퍼져 있다. 시장 성장이 가팔라

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화장품 수출액은 102억달러(약 15조원)로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더불어 미국에서는 수입 점유율 1위를 유지하던 프랑스(16.3%)를 따돌리고 한국(22.2%)이 선두에 올라섰으며, 일본에서는 3년째 화장품 수입국 1위를 수성하고 있다.

최근 M&A를 주도하는 곳은 돈 냄새를 맡은 글로벌 사모펀드 운용사(PEF)들이다.

지난해 3월 미국계 사모펀드 운용사 모건스탠리프라이빗에쿼티(MSPE)는 ‘메디필’, ‘데마메종’으로 유명한 화장품 기업 스킨이데아를 약 1000억원에 인수했다. MSPE아시아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활발히 투자 활동을 펼치는 글로벌 투자사로, 스킨이데아 인수를 통해 K-뷰티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했다.

이외에도 지난해 KB증권 PE본부(KBPE)와 나우IB캐피탈(나우IB)은 화장품 제조·생산 기업 이시스코스메틱의 인수를 완료했다. 나우IB는 과거 법정관리 상태였던 ‘뽀아’를 성공적으로 회생시켜 코스닥 상장까지 이끌면서 시장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큰 손’으로 꼽히는 구다이글로벌은 지난해에만 티르티르, 크레이버코퍼레이션, 라카코스메틱스 등 3개사를 품에 담았다. 티르티르는 2023년 사모펀드

운용사 더함파트너스와 재무적 투자자에게 지분 63.6%를 매각했고, 지난해에 구다이글로벌이 다시 인수한 경우도 있다. 최근에는 독도토너로 유명한 서린컴퍼니 매각과 관련해 협상 테이블에 올랐지만 최종 합의는 결렬됐다.

홍성표 삼일회계법인 K뷰티 섹터 리더는 “더함파트너스는 티르티르를 1년 만에 매각했는데 인수 시점부터 바이어를 고려했다는 방증”이라며 “상대적으로 다운사이드 리스크가 낮은 OEM, ODM 분야도 주목할 만하며 뷰티제품은 ‘감성 영역’이 중요해 국산 제품의 인기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중소기업 M&A 자문사 MMP의 ‘화장품 산업 M&A 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화장품 기업의 M&A 건수는 18건(2조3376억원)으로 전년 7건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2020년 4건에서 2021·2022년 10건, 2023년 11건으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 “홈플러스 관련, 금융사 책임조사 진행중”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개인 투자자에 판매한 홈플러스 관련 CP·회사채 등 판매액 제출 요구  
이번주 금융위 보고, 조치 취할 것”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홈플러스 전단체(ABSTB) 사태와 관련해 관련 금융사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관계 확인과 금융사의 책임 여부를 따지는 조사를 진행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 원장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기업·주주 상생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열린 토론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1차적으로 금융회사를 상대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자료 수집 작업은 이미 진행 중”이라며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의 검사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번 주 내로 증권사들이 개인 투자자에게 판매한 홈플러스 관련 기업어음(CP), 회사채, 전자단기사채(STB), ABSTB 등의 판매 금액을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이는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



/허정윤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기업·주주 상생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열린 토론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진 홈플러스 전단체(ABSTB) 투자자들의 손실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조치다.

이 원장은 “전단체 판매 문제나 세일앤리스백(sales & leaseback) 과정 중 리테일로 떨어졌는데 대해 감독기관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금감원이 이번 사태를 면밀히 조사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어 “홈플러스 거래 대상이 되는

3500개 거래업체 명단과 거래내역, 미지급내역 등을 확보해 정부에서 필요한 판단을 할 수 있게 밑자료를 준비해놓은 상태”라며 “산업부나 중기부에서 일시적인 자금난에 처한 중소기업들을 위한 여러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홈플러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 원장은 “심리적 쏠림으로 인해 홈플러스가 정상적인 운영이 안 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가장 주되게 볼 수밖에 없다”며 “홈플러스와 금융회사, 이해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 중”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이번 주 중 계획을 짜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지침을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2일 홈플러스 전단체(ABSTB)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들은 금융감독원 앞에서 시위를 열고, 해당 채권을 ‘상거래채권’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 홈플러스 회생신청 MBK, 운용보수 1조 챙겨

사모펀드 운용 ‘도덕적 해이’ 논란  
MBK, 자구노력 없이 기습회생 신청  
직·간접 고용 3만명, 1만여개 납품사  
금융기관 등 이해관계자들 피해 커

사모펀드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인수하는데 활용한 펀드 운용으로 1조원 수준의 성과 보수(캐리)를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MBK는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할 때 3호 블라인드펀드에서 3조2000억원을 조달했다. 이는 인수금융(차입금)과 홈플러스의 기존 부채를 포함한 전체 인수 비용 7조2000억원 중 44%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3호 펀드는 홈플러스 외에도 오렌지라이프(옛 ING생명), 두산공작기계, 네파, 대성산업가스, 일본의 아코디아넥스트골프, 홍콩브로드밴드네트워크(HKBN) 등을 투자하는 데 사용됐다. 여러 투자처에서 선방하면서 3호 블라인드펀드의 내부수익률(IRR)은 28%로 추정되고 있다. 아직 수익이나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투자 대상은 홈플러스와 네파로 추려지는데, 시장에서는 두 곳에서 손실이 나더라도 3호 블라인드펀드의 전체 IRR이 최소 15% 이상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운용과 성과보수로는 지난해 9월 말 기준 1조1325억원을 챙겼다. 운용보수는 2억5000만달러(한화 약 3630억원), 성과 보수는 5억3000만달러(7695억원) 정도다. 총합 1조1325억원 수준으로 11년간 연평균 1000억원을 넘기는 금액이다. 운용 보수는 펀드 청산이 이뤄지지 않아 정기적으로 수령한다고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전체 성과 보수의 15~20%가량을 유보액으로 남겨두는 점을 감안한다면 최소한 1조원 전후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경영 실패로 인해 홈플러스의 핵심 점포들이 매각되고, 손실을 누적해 나



홈플러스 유동화 전단체 피해자들이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홈플러스 유동화 전단체(ABSTB) 피해자 상거래채권 분류(인정) 요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가는 과정에서도 MBK는 수익을 챙길 수 있었던 것이다. 다만 이처럼 성과보수를 통해 운용사가 높은 수익을 얻는 방식은 사모펀드 업계에서는 흔한 구조이기도 하다.

홈플러스 사태에서는 MBK가 자구노력 없이 기습적인 기업회생을 신청해 직·간접 고용인원 3만명과 1만여개 납품사, 외부 임대매장점주,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들까지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의 피해가 커진 점이 주목되고 있다. MBK가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 이유다.

한편, 신용등급 하락을 이유로 지난 4일 기업회생정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주장해온 홈플러스와 대주주인 MBK파트너스가 등급 강등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홈플러스와 대주주인 MBK가 지난 4일 겹으로 신용등급 하락을 이유로 기습적으로 회생정차를 신청하기 직전까지 기업어음(CP)을 발행해 애꿎은 투자자들의 손실을 초래했다는 비난을 받는 상황이어서, 후폭풍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신하은 기자

## 한양증권, 2800억 주상복합 본PF 완료

경기 광주 경안2지구 4개 동 규모

한양증권은 13일 경기 광주 경안2지구 주상복합 도시개발사업 본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총 2800억 원 규모로 한양증권이 금융주관사로 참여했다.

해당 사업은 경기 광주 역동 28-3번지 일대 2만9725㎡ 부지에 주상복합 4개 동 규모로 673가구의 공동주택 및 216호실의 오피스텔, 1만여㎡ 규모의 판매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지난 2019년 본격화했으나 부동산 경기침체, 사업계획 변

경 등으로 사업 지연을 겪었다.

지난해 시공사로 효성중공업, 금융주관사로 한양증권이 참여해 사업을 본격 재추진하여 본PF 완료에 이르렀다. 올 4월 착공 및 5월 분양, 2029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는 해당 사업을 통해 쾌적한 주거 공간 조성, 교통 기반시설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양증권은 올해 초 기업금융(IB) 역량 및 부동산 PF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김기형 IB총괄대표를 영입했다.

/신하은 기자

## 한국거래소 성평등 Ring the Bell 행사

한국거래소 13일 서울사옥 KRX Market Square(종합홍보관)에서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유엔여성기구(UN Women), 국제금융공사(IFC)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5년 성평등을 위한 Ring the Bell’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성평등을 위한 Ring the Bell 행사는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하에 성평등 달성을 위한 민간 부문 협력과 여성역량강화원칙(WEPs)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자 진행되고 있다.

/신하은 기자